

[파생상품 ETF 거래 위험고지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ETF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거래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본시장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로서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기초지수 또는 특정종목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ETF”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것입니다.
- 아래 사항은 파생상품 ETF에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파생상품 ETF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ETF의 상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공시정보(상품소개 및 투자설명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ETF를 거래하시기 전에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투자 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ETF 거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구분	고객투자성향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공격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
2등급 (높은위험)	적극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수용
3등급 (다소높은위험)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4등급 (보통위험)	위험중립형	-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 -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6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예금자보호 여부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상담센터(**1588-0365**) 및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대표번호: 1588-0365)

▣ 파생상품 ETF 거래 위험고지

1. ETF란 특정 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유통)되는 펀드이며,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단일종목 인버스 ETF 등 기초지수 또는 특정종목 변동률을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파생상품 ETF”라 합니다.

2. 추적지수 수익률이 ± 1 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는 추적지수의 누적수익률이 플러스(+)이거나 0%(제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적지수 수익률이 음의 배율을 추구하는 인버스 ETF는 추적지수의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0%(제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벤치마크의 일일수익률에 배수 및 역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벤치마크의 기간수익률과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누적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장기 보유할 경우 기대한 수익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보다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동시에 주식 시장의 변동성 등 재무적인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5. “파생상품 ETF”를 매매하는 경우 ETF 본래의 투자위험 이외에 동 파생상품 ETF를 1영업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복리효과 등에 따라 당해 파생상품 ETF가 추구하는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단기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상품 ETF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인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 하락 시 손실 하방에는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커버드콜 기본 손익구조 = 기초자산 매수 + 해당 기초자산 관련 콜옵션 매도 →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

7.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8.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예시]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했을 때, 일반 상품(X1)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X2)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 발생

9.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0.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에서 운영하는 “[사전교육]국내외 레버리지 ETP Guide(1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전에 증권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현금 및 대응증권 포함)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11.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일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위 사전교육 외에 다음의 ①, ② 요건을 사전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에서 운영하는 심화 사전교육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상품 거래 사전교육” 온라인 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② 한국거래소(sern.krx.co.kr)에서 운영하는 모의거래시장에서 5거래일 이상 참여하고, 매 거래일 1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전에 증권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현금 및 대응증권 포함)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는 현금만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되고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ETF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응증권에서도 제외됩니다.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6에 따라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국내기초자산 4% 이상, 해외기초자산 10% 이상)인 경우 「적출 및 지정예고 → 지정」의 2단계 절차로 지정 또는 호가·매매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음.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매매거래일 단일가매매(30분 단위) 적용(해제조건 미충족 시 3매매거래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13. ETF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달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표가치에서 이격된 가

격으로 투자할 경우 지수의 움직임과 투자성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 결정시 실시간 지표가치와 괴리율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파생상품 ETF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ETF의 분배금(배당)은 국내주식의 배당처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16. 파생상품 ETF 거래 전 사전교육 및 심화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매매경험	사전교육	심화교육	모의거래
신규투자자	기존 매매경험 없음	1시간	2시간	5거래일 이상 및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기존 레버리지·인버스 ETF 매매 경험자	2026.05.21까지 레버리지·인버스 ETF 매매경험 있음 (단일종목 ETF 제외)	기존교육 이수기준 적용	2시간	5거래일 이상 및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기존 해외상장 단일종목 ETF 매매 경험자	2026.05.21까지 해외상장 단일종목 ETF 매매경험 있음	면제	면제	면제
기존 단일종목 ETF 매매 경험자	2026.08.18까지 단일종목 ETF 매매경험 있음	기존교육 이수기준 적용	기존교육 이수기준 적용	면제

- * 심화교육의 기존 매매경험 인정 여부는 2026.05.22 시행 전 매매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모의거래는 2026.08.19부터 적용하며, 2026.08.18까지 단일종목 ETF 매매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지된 사항들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 시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이므로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의 모든 위험을 고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대표번호: 1588-0365)

[단일종목 기반 파생상품 ETF 투자자 유의사항]

(1) 단일종목 기반 파생상품 ETF는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단일종목 기반 파생상품 ETF는 분산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악재,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실적, 투자 계획 발표 등 각종 뉴스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단일종목 ETF의 경우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2)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파생상품 ETF는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투자 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일종목 가격이 투자자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일종목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단일종목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변동성 잡식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했을 때, 일반 상품(×1)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2)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 발생

◦ 이에 적립식 등 장기 투자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3) 단일종목 기반 파생상품 ETF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新상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집중 투자 위험, 손실 확대 등 특유의 투자 위험을 숙지한 후, 본인의 투자목적, 경험 및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